

## 지질공원의 생물

도카치 시카오이 지질공원의 산과 평야는 ‘빙기의 생존자’라고도 불리는 ‘에조우는토끼’와 화산 활동으로 인해 살고있던 강이 막혀 독자적인 진화를 이룬 물고기 ‘미야베 곤들매기’, 북극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랭 기후 식물 등 다양한 생명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지질공원과 그 주변 지역에서 있었던 고고학적 발견은 약 3 만 년 전부터 도카치 평야에서 인간이 생활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많은 동식물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최종빙기(7 만~1 만 년 전)에 랜드 브리지(육교)를 통해 유라시아 대륙에서 이동해 왔습니다.

### 랜드 브리지(육교)

8 만 년에서 1 만 년 전, 지구의 기온은 현재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지구상의 물이 얼음이었으며 최종빙기(약 2 만 년 전)의 가장 추웠던 시절, 해수면은 오늘날보다 120m 나 낮았습니다. 해수면이 더 낮았기 때문에 얇은 해저가 드러났고 드러난 해저가 섬과 대륙을 연결하는 랜드 브리지가 되었습니다. 홋카이도는 사할린을 경유해 유라시아 대륙으로 이어져 있었고, 혼슈, 시코쿠, 규슈는 한반도를 통해 유라시아 대륙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매머드와 북방우는토끼 등의 동물들은 북부의 랜드 브리지를 경유해 홋카이도로 이동해 왔습니다.

### 두 개의 다른 생물지리학적 지역

홋카이도의 동식물은 다른 일본 주요 섬인 혼슈나 시코쿠, 규슈의 동식물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홋카이도와 혼슈 사이에 쓰가루 해협이라는 깊은 해협이 있어서, 해수면이 가장 낮았던 시대에도 홋카이도와 혼슈가 랜드 브리지로 연결되는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이 홋카이도와 혼슈 사이를 왕래할 수 없었습니다. 혼슈와 홋카이도에 있는 동식물 서식 분포 경계선이 블레이크스톤선입니다. 북방우는토끼, 북방여우,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부엉이인 블레이크스톤 물고기잡이 부엉이 등은 일본에서는 홋카이도에서만 볼 수 있는 종 중 하나입니다.